

# 종합병원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 불안 및 대리양육

##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Feelings, Separation Anxiety and Alternative Care in Hospital-Nurses

박윤경\*, 이주연\*, 임소라\*, 장희란\*, 강효정\*, 김지수\*\*  
가천대길병원\*,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Yun-Kyung Park(yun@gilhospital.com)\*, Juyoun Yi(youn-0486@hanmail.net)\*,  
Sora Lim(62386250@hanmail.net)\*, Heeran Jang(stable@naver.com)\*,  
Hyo-Jeong Kang(Gywj4321@hanmail.net)\*, Ji-Soo Kim(kimjisoo@gachon.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미취학 자녀를 가진 기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을 파악하고 대리양육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기간은 2013년 8월 15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로 대상자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2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63명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은 공통적으로 나이, 직장만족도,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 및 배우자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대리양육의 만족도와 대리양육형태에 따라서도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그리고 격리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출근 시 일반보육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양육자의 집에 맡기는 경우가 다른 양육자가 가정으로 와서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보다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이 더 많았다. 어머니의 심리적인 부담은 자녀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은 병원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양육을 지지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개선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육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대리양육 | 간호사 | 양육스트레스 | 양육죄책감 | 격리불안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feelings and separation anxiety and alternative care in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es with preschooler at 2 hospitals from August 2013 to January 2014.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163 nurs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satisfaction of work place and co-worker, spouse support of parenting in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feelings and separation anxiety in common. The majority type of alternative care was surrogate foster home when they went to work.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ype of alternative care in parenting stress, parenting guilt feelings and separation anxiety. Particularly, those who use child day-care center and surrogate foster home showed more parenting guilt feelings and separation anxiety in Scheffe post-hoc comparison. As a result, it is needed to b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policy for nurses' parenting support to continue work.

■ keyword : | Alternative Care | Nurse | Parenting Stress | Parenting Guilt Feeling | Separation Anxiety |

## I.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는 인구변동과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형성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다양한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족의 구조변화 및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의식 변화, 능력의 향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여성의 사회활동 또한 보편화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1]. 특히 여성의 활동이 많은 간호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활동 간호사는 63.2%로 2011년 여성경제활동 51.3%보다 월등히 높다. 이중 미취학아동을 둔 간호사는 전체 활동 간호사의 80%이상으로 대부분의 활동 간호사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시대를 초월하여 자녀양육은 부모의 대표적 역할로서 심리적인 만족감, 기쁨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경제적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 개인생활의 여가 제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더욱이 취업여성의 경우는 자녀 양육과 함께 직장의 이중역할 부담으로 인해 전업주부에 비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3]. 또한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와 대리양육으로 인해 자녀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못한다는 죄책감이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

교대근무를 하는 조직체계에 있는 기혼간호사는 양육과 직장생활의 양립이 더욱 힘들다. 근무시간 동안 대부분의 자녀는 대리양육이 되고 있어 자녀와의 격리는 보편적인 일이다. 하지만 모성애의 전통적인 태도, 특히 자녀는 어머니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 직장 내 보육시설의 비활성화, 낮은 지지체계 등은 격리불안을 유발시킨다[5]. 이로 인해 미취학자녀를 둔 교대근무 간호사의 74.8%가 양육문제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6].

따라서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양육스트레스[3][7][8], 죄책감 및 격리불안[9][10]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리양육과 관련한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 대리양육유형과 양육 스트레스[4]

그리고 간호사의 대리양육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효능감 및 행동에 대한 연구[1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대리양육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논문은 있으나,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병원 간호사 양육실태조사에 따르면 95.1%가 대리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12], 상당수의 기혼 간호사가 자녀를 대리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취업모가 많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을 파악하고 대리양육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기혼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을 파악한다.

둘째, 대리양육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을 분석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을 파악하고 대리양육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경기도 G대학병원과 N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간호사를 표적 집단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표본크기 계산 프로그램 G\*Power 3.1.2를 이용하여 ANOVA 통계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유의수준  $\alpha=0.05$ , 검정력 80%,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f=0.25$ , 그룹 수를 5개로 설정했을 때 대상자 160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간호

사 1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 도구

#### 3-1. 일반적 특성 및 대리양육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변수, 근무조건, 자녀와 관련한 변수 및 직장과 결혼만족도를 묻는 12문항을 포함하여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와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묻는 2문항을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리양육을 조사하기 위해 대리양육에 대한 만족도와 비용을 묻는 2문항 및 선행연구[11]를 토대로 구성된 대리양육형태를 묻는 1문항을 설문지로 작성하였다.

#### 3-2. 양육스트레스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3]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 영역, 총 32문항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요인(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2]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3-3. 양육죄책감

본 연구에서는 김기현과 강희경[13]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도구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척도'와 Mann과 Thornberg[14]가 개발한 '어머니 죄책감 척도' 바탕으로, 장인숙[9]이 취업모의 특성에 맞게 구성된 양육죄책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6문항), 타인에 대한 죄책감(7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죄책감(4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죄책감의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9]에서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 이었다.

#### 3-4. 격리불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복희와 박성옥[15]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격리불안 측정도구는 일반적인 어머니의 격리불안(13문항), 아동의 격리반응 및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10문항),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가치(6문항), 신체적 접촉 및 밀접함에 대한 열망(5문항),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격리관심 및 태도(5문항)의 5개의 하위영역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격리불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1문항을 제외한 38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15]에서의 신뢰계수는 Cronbach's  $\alpha$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4.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는 경기도 G대학병원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GBIRB2013-182)를 통과한 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5일부터~2014년 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G대학병원과 N종합병원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인 비밀 보장 및 연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참여의 동의서를 받은 후 대상자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17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작성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163부를 분석하였다.

###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 특성 및 대리양육형태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를 이용하였다. 주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4.32세였고 평균 근무경력

은 11.69년이었다. 미취학자녀의 평균연령은 3.40세였고 미취학자녀를 1명 둔 경우가 55.8%였다.

양육스트레스는 나이( $p=.005$ ), 근무경력( $p=.046$ ), 총 자녀수( $p=.015$ ), 미취학 자녀수( $p=.006$ ), 결혼만족도( $p<.001$ ), 양육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만족도( $p<.001$ ),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변수	구분	n(%)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M±SD	t/F(p)	M±SD	t/F(p)	M±SD	t/F(p)
나이(세)	≤29 <sup>a</sup>	17 (10.4)	114.76±22.18	4.390	65.59±12.39	5.789	126.59±15.33	3.721
	30-34 <sup>b</sup>	70 (42.9)	100.06±17.76	(.005)	55.40±11.13	(.001)	118.74±12.98	(.013)
	35-39 <sup>c</sup>	57 (35.0)	96.79±19.05	a)b,c,d	55.05±10.50	a)b,c,d	115.60±13.21	a)c,d
	≥40 <sup>d</sup>	19 (11.7)	96.76±14.33		50.79±11.75		114.16±10.33	
M±SD 34.32±3.79								
근무경력 (년)	≤4	6 ( 3.7)	92.67±10.05	2.723	50.00±9.33	2.838	116.67±4.23	2.192
	5-9	47 (28.8)	106.67±22.40	(.046)	59.00±13.52	(.040)	121.94±13.88	(.091)
	10-14	75 (46.0)	97.61±17.56		55.89±9.60		116.89±13.91	
	≥15	35 (21.5)	98.18±16.62		52.31±12.18		114.97±11.58	
M±SD 11.69±4.31								
미취학자녀 연령 (세)	<1	30 (18.4)	102.54±22.16	1.729	58.07±13.34	1.994	121.43±12.41	3.388
	1-3	40 (24.5)	105.50±17.37	(.163)	59.00±11.73	(.117)	121.45±14.06	(.020)
	3-6	61 (37.4)	98.12±20.20		54.18±11.17		116.39±13.92	
	≥6	32 (19.6)	96.53±14.86		54.07±10.01		112.77±11.26	
M±SD 3.40±1.97								
학력	전문학사	48 (29.4)	101.81±16.38	0.276	55.81±11.03	0.312	119.31±11.03	1.411
	학사	87 (53.4)	99.30±21.39	(.759)	56.29±12.57	(.759)	118.37±14.19	(.247)
	석사	28 (17.2)	99.58±15.27		54.29± 9.47		114.18±14.21	
직위	일반간호사	87 (53.4)	101.86±19.01	0.774	57.52±12.06	2.070	120.18±13.08	3.239
	책임간호사	61 (37.4)	98.14±20.44	(.463)	53.93±11.06	(.129)	116.09±14.06	(.042)
	수간호사	15 ( 9.2)	97.93±11.68		53.47±10.08		112.27±09.5	
근무조건	낮 근무	69 (42.3)	96.88±17.64	1.823	53.57±10.66	2.282	114.71±13.06	3.584
	2교대	22 (13.5)	100.50±20.69	(.165)	57.00±11.09	(.105)	119.86±12.93	(.030)
	3교대	72 (44.2)	103.00±19.53		57.58±12.39		120.42±13.34	
총 자녀수	1명	91 (55.8)	96.97±17.62	-2.448	54.29±11.01	-1.892	118.56±11.59	0.679
	2-3명	72 (44.2)	104.31±20.09	(.015)	57.72±12.13	(.060)	117.13±15.38	(.498)
미취학 자녀수	1명	121 (74.2)	97.71±17.47	-2.807	54.17±11.38	-3.125	117.05±12.28	-1.425
	2-3명	42 (25.7)	107.25±21.68	(.006)	60.50±11.07	(.002)	120.45±16.02	(.156)
주거형태	전세	62 (38.0)	99.92±16.51	-0.098	56.89±09.33	0.933	117.23±13.50	-0.523
	자가	101 (62.0)	100.22±20.45	(.922)	55.14±12.80	(.352)	118.36±13.35	(.602)
급여 (10,000원)	<300 <sup>a</sup>	85 (52.1)	102.00±19.68	1.053	56.73±12.12	0.836	120.78±14.09	5.192
	300-400 <sup>b</sup>	54 (33.1)	97.15±16.33	(.351)	54.15± 9.53	(.435)	113.46±11.57	(.007)
	≥400 <sup>c</sup>	24 (14.7)	99.77±22.03		56.25±13.89		117.88±12.22	a)b
결혼만족도	만족 <sup>a</sup>	91 (55.8)	93.83±17.04	17.916	54.20±11.24	6.003	116.09±13.53	2.776
	보통 <sup>b</sup>	65 (39.9)	106.12±16.93	(.001)	56.62±11.17	(.003)	119.58±12.28	(.065)
	불만족 <sup>c</sup>	7 ( 4.3)	126.71±22.74	a(b,c)	69.14±12.56	a,b(c)	126.29±17.76	
양육에 대한 배우자지지	만족 <sup>a</sup>	65 (39.9)	92.40±16.59	14.413	52.84±10.33	7.357	114.95±12.38	3.778
	보통 <sup>b</sup>	70 (42.9)	101.76±16.51	(.001)	55.86±11.85	(.001)	118.70±12.71	(.025)
	불만족 <sup>c</sup>	28 (17.2)	113.43±21.82	a(b,c)	62.54±11.33	a,b(c)	122.89±15.76	a(c)
직장만족도	만족 <sup>a</sup>	71 (43.6)	92.82±16.92	21.325	53.90±11.06	12.954	116.69±12.26	4.908
	보통 <sup>b</sup>	78 (47.9)	101.96±16.36	(.001)	55.03±10.29	(.001)	117.18±12.84	(.009)
	불만족 <sup>c</sup>	14 ( 8.6)	124.64±20.22	a(b,c)	69.79±12.56	a,b(c)	128.36±17.72	a,b(c)
양육에 대한 직장 동료의 지지	만족 <sup>a</sup>	59 (36.2)	92.65±18.51	10.171	53.19±11.00	5.475	113.88±11.70	5.126
	보통 <sup>b</sup>	94 (57.7)	102.65±17.80	(.001)	56.40±11.63	(.005)	119.73±13.82	(.007)
	불만족 <sup>c</sup>	10 ( 6.1)	117.20±16.78	a(b,c)	65.60±9.62	a(c)	124.80±13.05	a(c)
주 변수 M±SD			100.11±19.01		55.80±11.61		117.92±13.38	

\* Scheffe  $p<.05$

직장만족도( $p<.001$ ),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지지의 만족도(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많았고, 직장과 결혼에 불만족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많았다. 또한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지지의 만족도가 보통이하인 경우와 배우자의 지지가 불만족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많았다[표 1].

양육죄책감은 나이( $p=.001$ ), 근무경력( $p=.040$ ), 미취학 자녀수( $p=.002$ ), 결혼만족도( $p=.003$ ), 양육에 대한 배우자지지 만족도( $p=.001$ ), 직장만족도( $p<.001$ ),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지지의 만족도( $p=.005$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2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양육죄책감이 많았고, 직장과 결혼에 불만족인 경우에 양육죄책감이 많았으며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와 배우자지지에 대해 불만족인 경우가 양육죄책감이 많았다[표 1].

격리불안은 나이( $p=.013$ ), 미취학자녀 연령( $p=.020$ ), 직위( $p=.042$ ), 근무조건( $p=.030$ ), 급여( $p=.007$ ), 배우자지지의 만족도( $p=.025$ ), 직장만족도( $p=.009$ ),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지지의 만족도( $p=.007$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20대와 급여가 300미만인 경우 그리고 직장에 불만족인 경우에 격리불안이 많았으며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와 배우자의 지지가

불만족인 경우에 격리불안이 높았다[표 1].

## 2. 대리양육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간호사의 대리양육형태는 출근 시 다른 양육자의 집에 맡기는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다른 양육자가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경우 그리고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순이었다[표 2].

양육스트레스는 대리양육만족도( $p<.001$ ), 대리양육형태( $p=.02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대리양육에 대해 불만족일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많았다[표 2].

또한 양육죄책감에서는 대리양육만족도( $p<.001$ ), 대리양육비용( $p=.001$ ), 대리양육형태( $p=.00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대리양육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양육죄책감이 많았으며 대리양육비용이 30만원 미만보다 100만원 이상일 때가 양육죄책감이 많았다. 그리고 출근 시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양육자의 집에 맡기는 경우가 다른 양육자가 집으로 와서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보다 양육죄책감이 더 많았다[표 2].

격리불안에서는 대리양육만족도( $p<.001$ )와 대리양육형태(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Scheffe

표 2. 대리양육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변수	구분	n(%)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M±SD	F(p)	M±SD	F(p)	M±SD	F(p)
대리양육 만족도	만족 <sup>a</sup>	84 (51.5)	93.39±17.20	19.072	52.61±10.69	13.612	113.81±12.95	11.254
	보통 <sup>b</sup>	63 (38.7)	103.77±16.55	( $<.001$ )	57.08±11.03	( $<.001$ )	120.87±11.27	( $<.001$ )
	불만족 <sup>c</sup>	16 ( 9.8)	120.56±19.08	a(b,c <sup>*</sup> )	67.56±10.41	a(b,c <sup>*</sup> )	127.94±15.55	a(b,c <sup>*</sup> )
대리양육 비용 (10,000원)	<30 <sup>a</sup>	23 (14.1)	93.43±18.68	1.424	50.22±12.30	3.413	113.22±10.34	2.343
	30~(50 <sup>b</sup>	27 (16.6)	101.52±18.96	(.229)	57.19±12.54	(.010)	121.37±17.81	(.057)
	50~(70 <sup>c</sup>	49 (30.1)	98.15±16.27		54.18±10.04	a(e <sup>*</sup> )	115.51±10.98	
	70~(100 <sup>d</sup>	37 (22.7)	102.43±20.11		56.38±12.17		118.41±13.84	
	≥100 <sup>e</sup>	27 (16.6)	104.78±21.55		61.33±9.81		122.22±12.53	
대리 양육 형태	출근 시 일반보육시설 <sup>a</sup>	36 (22.1)	104.39±20.12	2.955 (.022)	59.39±11.77	4.603 (.002)	122.03±15.43	6.850 ( $<.001$ )
	출근 시 다른 양육자(조부모, 친척 등)의 집에 맡김 <sup>b</sup>	49 (30.1)	102.21±18.95		57.20±10.83	a,b,c <sup>*</sup>	121.24±10.73	a,b,c <sup>*</sup>
	다른 양육자(조부모, 친척 등)가 집으로 올 <sup>c</sup>	38 (23.3)	91.32±17.76		49.68±10.88		108.92±12.29	
	주중에만 다른 가족의 집에서 양육 <sup>d</sup>	20 (12.3)	103.70±15.01		59.25±9.67		119.60±13.77	
	집에서 다른 가족이 돌봄(대 가족) <sup>e</sup>	20 (12.3)	100.61±19.34		54.10±12.36		117.85±9.33	

\* Scheffe  $\alpha<.05$

사후검정에서는 대리양육만족도가 만족보다는 보통이나 불만족인 경우에 격리불안이 높았으며 출근 시 보육 시설에 맡기거나 다른 양육자의 집에 맡기는 경우가 다른 양육자가 집으로 와서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보다 격리불안이 더 많았다[표 2].

####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 및 격리불안 그리고 대리양육에 따른 이러한 변수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연령, 근무경력,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8][16-18], 간호사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와 근무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수가 2-3명인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의 기혼 간호사는 양육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경력 즉 5-9년의 중간경력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직장생활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이 계속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또한 자녀가 1명인 경우보다는 돌보는 자녀가 많은 경우에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에는 배우자 또는 결혼생활과 같은 지지체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3][7][16][17], 본 연구에서도 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그리고 결혼만족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가 양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직장만족도와 양육에 대한 동료 지지의 만족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같은 도구로 측정한 김영숙과 권미경[3]의 연구에서는 직장만족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지지의 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점은 본 연구와 조금 다른 결과이다. 최근 취업

모가 많아지면서 직장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18]에 따르면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가 상관관계가 있고 양육에 대한 동료지지도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직장에 관한 요인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죄책감 또한 나이, 근무경력, 미취학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9]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20대의 기혼 간호사와 5-9년의 중간경력에서 양육죄책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을 위한 지지가 다른 어느 연령과 경력보다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양육죄책감은 어머니 자신의 모성본능이나 어머니가 양육에 양질의 투자를 할 것을 기대하는 문화로부터 발생하는데[19],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죄책감이 크게 나타난 점은 취업모의 경우 아직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야 하는 데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죄책감은 직장과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직장동료와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지지에 대해 만족한 경우에 낮게 나타나, 기혼 간호사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지지 체계가 양육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양육죄책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격리불안은 선행연구[20]와 마찬가지로 20대의 기혼 간호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3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높았다. 급여가 300만원 미만의 기혼 간호사에서 격리불안이 높은 것은 20대 기혼 간호사의 경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리불안은 직위와 근무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간호사가 일반취업모보다 출퇴근 시간이 다르며, 빈번히 변하는 근무시간이 자녀양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8].

게다가 직장과 양육에 대한 직장동료지지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격리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혼 간호사의 양육에 직장환경과 동료의 지지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양육과 관련한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장환경개선 등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과 달리 결혼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없고 양육지지에 대한 배우자 만족도에서만 차이가 나타난 점은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반응과는 달리 격리불안은 자녀와 분리될 때 어머니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으로 배우자의 실질적인 역할분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기혼 간호사에게 자녀의 대리양육은 필연적인 것이며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리양육을 강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1]에서 사용한 5가지 대리양육형태로 기혼 간호사의 대리양육을 조사한 결과, 출근 시 다른 양육자(조부모, 친척 등)의 집에 맡겼다가 퇴근 후 데려오는 대리양육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2010년 실시된 병원 간호사의 양육실태조사[12]에서도 조부모나 친척에게 양육을 위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본 연구결과로 알 수 있듯이 기혼 간호사의 양육이 여전히 조부모나 친척에 의지하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리양육에 대해 만족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11]와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시도한 양육죄책감, 격리불안 역시 낮게 나타나 대리양육에 따라 취업모의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다. 특히 양육죄책감은 대리양육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 더 많았는데 이는 대리양육비용이 많은 경우가 대리양육의 형태 중에서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양육이 아닌 비혈연 관계나 기관을 통한 양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21]. 비용은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리양육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인 양육을 하지 못한다는 심리적 갈등과 부담감이 죄책감을 더 많이 유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리양육형태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 양육

죄책감, 격리불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스트레스는 선행연구[11]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높았다. 대리양육형태에 따라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대리양육형태가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결과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취업모의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의 영향요인에 대한 후후연구에서는 반드시 대리양육형태를 요인으로 포함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특히 출근 시 일반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다른 양육자(조부모, 친척 등)의 집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른 양육자가 집으로 와서 돌봐주는 경우에 비해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시설이나 다른 양육자의 집에 위탁하는 경우에 취업모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미취학 자녀에 대해 취업모들은 일로 인한 자녀와의 격리로 인한 불안감과 자신의 보호와 양육이 부족하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지만,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은 과보호나 과잉보상 같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25]. 연구결과처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양육자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이 낮은 것은 가정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점과 자녀가 있는 곳을 확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심리·정서적 안정은 곧 양육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22-24], 취업모들이 경험하는 양육죄책감과 격리불안 같은 심리·정서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육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모들은 조부모, 친척 등에 의존하는 대리양육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직장보육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2][20] 본 연구대상자가 근무하는 병원들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었다. 간호사와 같이 전문여성인력의 비중이 높은 병원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직장 보육시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12]. 직장 보육시설은 일하는 동안 육체적, 심리적 거리의 단축으

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출퇴근 함으로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여성의 사회참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양육은 여성 경제활동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간호사는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3교대 등으로 양육을 위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죄책감, 격리불안 같은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본 연구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육과 관련한 문제는 또한 간호사 이직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8][12].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병원 간호사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해서는 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심리적 부담감이 가장 적은 가정 내 대리양육을 위해서 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2차 기초분석 보고서, 2009.  
 [2] 대한간호정책연구소, 분야별 활동 간호사 및 간호사 현황분석연구, 2006.  
 [3] 김영숙, 권미경, “간호사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3권, 제2호, pp.86-94, 2010.  
 [4] 강미란, *맞벌이 부모의 자녀 대리양육 유형과 양육스트레스*,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김교성, 김경희,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및 격리불안정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33권, pp.1-22, 2003.  
 [6] 최정애, *간호사의 영유아보육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7] 권영순, *취업간호사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직무 및 가족관련 변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8] 강수정, 김숙영,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4호, pp.508-515, 2011.  
 [9] 장인숙,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0] 백영숙,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송원경, *간호사의 대리양육유형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효능감 및 행동*,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2] 손인순, 김호미, 박광옥, 한상숙, “병원 간호사의 양육실태와 직장 보육시설 요구도 조사”, 임상간호연구, 제16권, 제1호, pp.51-60, 2010.  
 [13] 강희경, 김기현,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5호, pp.141-150, 1997.  
 [14] M. B. Mann, and K. R. Thornburg,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Vol.27, pp.451-464, 1987.  
 [15] 조복희, 박성옥, “어머니 격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6-37, 1992.  
 [16] 김기현,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제9권, 제1호, pp.71-84, 2000.  
 [17] 오재연, 유구중,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5호, pp.73-94, 2007.  
 [18] 오재우, 문영숙, 박인숙, “간호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10호, pp.469-481, 2013.  
 [19] A. Rotkirch,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Vol.8, pp.90-106, 2009.

- [20] 박주영, 조복희,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실태, 격리불안과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1호, pp.77-88, 2000.
- [21] 강운심, *다양한 보육형태로 살펴본 육아문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2] O. Peleg, E. Halaby, and E. Whaby,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differentiation of self to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and adjustment to kindergarten: A study in Druze famili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Vol.20, pp.973-995, 2006.
- [23] 김명희, 한세용,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격리불안과 양육죄책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4호, pp.99-115, 2012.
- [24] A. Tharner, P. C. M. Maartje, Marinus, H. van IJzendoorn, M. J. Bakermans-Kranenburg, W. V. J. Vincent, A. Hofman, F. C. Verhulst, and H. Tiemeiera, “Infant Attachment, Parenting Stress, and Chil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t Age 3 Yea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Vol.12, No.4, 2012.
- [25] 정은선, 이자영,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강인성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04-215, 2013.
- [26] 권경옥, *3교대근무 병원간호사의 자녀보육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저 자 소 개

박 윤 경(Yun-Kyung Park)

정회원



- 1991년 2월 : 안산대학교 졸업
- 2010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 현재 : 가천대학교 길병원 수간호사

<관심분야> : 간호, 양육

이 주 연(Ju-Youn Yi)

정회원



- 2004년 2월 : 동우대학 간호학과
- 2011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 현재 : 가천대학교 길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간호, 양육

임 소 라(So-ra Lim)

정회원



- 2007년 2월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 2013년 2월 : 가천대 학점은행제 간호학과 졸업
- 현재 : 가천대학교 길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간호, 양육

장 희 란(hee-ran jang)

정회원



- 2006년 2월 : 수원과학대학 간호학과
- 현재 : 가천대학교 길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간호, 양육

강 효 정(Hyo-Jeong Kang)

준회원



- 2008년 2월 : 문경대학 간호학과
- 2014년 2월 :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 현재 : 가천대학교 길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 간호, 양육

김 지 수(Ji-Soo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현재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영유아 성장발달, 아동간호